

## ‘새천년 첫 햇빛’ 품고 웅비의 세계로

### 한민족 호미곶해맞이축전 장관... 300만 경북도민 우렁찬 함성

#### 7,000만 한계레 통일염원 안고 지구촌 명승지 부상

웰컴 21C!  
새천년의 찬란한 여명!  
21세기 희망의 빛이 솟아오르는  
경북 포항시 장기면 호미곶.  
경북 새천년 만들기의 주역으로  
등장한 신경북일보사가 기획한 한  
민족 새천년맞이 대축전이 국가행  
사로까지 발전되면서 300만 경북도  
민의 우렁찬 함성이 모아진 곳이다.  
7천만 겨레의 통일염원을 안고  
힘차게 솟아오르는 새천년의 빛을  
향해 세계 60억 시선이 쏠려있는  
호미곶은 이제 지구촌의 명승지로  
부상하게 됐다.

한반도 최동단, 한국의 해맞이 고  
장, 조선 최고의 일출명승지로 각광  
받아온 호미곶은 이제 세계적으로  
웅비하는 경북의 자랑거리이자 우  
리나라의 명소가 됐다.  
새로운 천년 경북의 웅비를 알리  
는 우렁찬 쇄북소리와 함께 300만  
도민의 함성이 동해를 향해 포효하  
는 호미곶의 2000년 1월1일 새벽.  
호랑이 꼬리가 굽은 맥박으로 요  
동치는 동해의 파도를 타고 새천년  
의 힘찬 태양이 떠올랐다.  
지난날의 모든 허물과 암울했던  
기억들을 깨끗이 씻어 버린채 찬란

한 여명을 앞세우고 세계를 비추는  
큰 빛을 탄생시킨 이날, 호미곶은  
더욱 커보였다.  
새천년에는 이 터전위에서 새로  
운 역사가 만들어지고 늘푸른 동해  
의 물결이 새 세상을 이루게 될 것  
으로 기원하는 300만 경북도민의  
꿈을 열광케 만들기도 했다.  
행복여행 희망여행 새천년 여행  
의 출발점으로 등장한 호미곶은  
2000년 정월 초하룻날 300만 경북  
도민은 물론 7천만 한민족 모두를  
하나로 만들었다.  
“해가 뜨는 것을 보고만 있는 것  
은 최하위의 행위”라는 에머슨 제  
자인 미국 ‘소로 월든’의 말을 굳

이 인용하지 않아도 새천년 아침  
호미곶에서 적극적으로 새천년 해  
를 맞은 300만 경북도민은 최상의  
행위를 연출했다.  
2000년 아침 이 자리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새천년 메시지를 이의근  
경북도지사가 대신 낭독하고 전국  
의 종교지도자들도 나라의 안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순서로 한  
민족 해맞이 대축전이 펼쳐졌다.  
정장식포항시장등 지역 기관단체  
장들도 참석해 이날 한민족 해맞이  
대축전이 벌어진 호미곶은 새천년  
에도 영원할 것이다.

[한국선 부장]

#### 여야 선거법협상 내주 타결가능성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그들  
안 이견을 보여온 선거구제  
문제에 대해 「소선거구제+정  
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의  
견을 좁히기로 하고 있어 야  
선거법 협상이 내주초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빠르  
면 1월3일 양당 3역회의를 열  
어 선거구제에 관한 공동당론  
을 「소선거구제+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확정하고 곧  
바로 야당측과 최종협상을 벌  
일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여야가 선거구제 협상을 타  
결하면, 국회는 곧바로 정치  
개혁특위를 통해 선거법등 각  
종 정치개혁법안 중 나머지  
쟁점을 절충하는 동시에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국회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구성, 선거구들  
획정한 뒤 6, 7일째 정치개혁  
입법을 일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자민련 박태준  
총재는 30일 국민회의 한화  
갑 사무총장을 만나 선거구제  
를 양당 3역회의에서 결정도  
록 위임함으로써 국민회의측  
의 「소선거구제+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대야 절충안을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  
다.



김대중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 “21세기 한민족 위대한 시대로 만들어야”

##### 김대중 새천년 메시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일 「새  
천년을 맞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도전정신」이라면서 「21세기를  
받드시 한민족의 위대한 시대로 만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2000년 신년  
메시지」를 통해 「올해 우리들이 어  
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21세기의  
미래가 달려 있다」면서 「(오늘은)  
세계 일류국가를 향한 도약으로 우  
리 겨레는 물론 인류의 평화와 번  
영에 기여하기 위한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대통령은 「21세기가 요  
구하는 높은 지적수준과 문화적 창  
의력,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큰  
시장으로 둘러싸인 지정학적 조건  
등을 볼때 21세기는 우리에게 주어  
진 기회요 축복」이라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이어 「올 한해 국민  
화합의 실현, 국정개혁의 완수, 신  
지식인사회의 실현, 세계일류경제의  
지향, 남북협력의 촉진 등 5대 국정  
과제의 실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면서 「올해는 무엇보다도  
중산층과 서민의 복지향상에 최우  
선의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  
다.

#### 울진원전 4호기 상업운전

한국전력은 31일 경북 울진군 북  
면 소재 울진원자력발전소 4호기의  
상업운전을 개시했다고 이날 밝혔  
다. 울진 4호기는 100만kWh의 가  
압경수로형으로 연간 70억kWh의 전  
력을 생산할 예정이다.

이로써 국내에서 가동중인 원전  
은 총 16기에 발전용량만도 1천371  
만6천세에 이르게 됐다.

순수 국산기술로 설계, 건설된 울  
진 원전 4호기는 93년 7월에 착공,  
상업운전에돌입하기까지 모두 6년  
5개월이 소요됐다.

내일 신문 쉽니다

#### 새천년 새해특집

새천년 새해아침 정담	3	4월총선 누가 뛰나	5
새천년 경북도정	6	용틀임하는 지역경제	8-9
신정연휴 TV프로	10-11	이영희교수 한·일역사 진단	12
밝은 사회 건강한 사회	13	포항스틸러스 우승도전	14
지방자치 요원한가	15	새천년은 물자원시대	16
경북 환경오염 현주소	17	교육 이대론 안된다	18

새천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신경북일보 임직원 일동



#### 어둠 뚫고 솟아오르는 '새천년 도전의 첫 햇빛'

2000년 첫 날 첫 태양이 어둠을 뚫고 찬란히 솟아 오른다.

온갖 시련을 극복하고 좌절을 희망으로 바꾸는 새시대의 햇빛. 험한  
산을 오르듯 견실한 한 걸음 한 걸음을 떼어 놓아야 하겠다.

포항시 장기면 신창리 해안에서 김배근기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새·천·년 삼성의 디지털 경영이 시작됩니다

뉴 밀레니엄 시대, 변화의 핵심은 '디지털'입니다. 지식과 정보가 경쟁력이 되고,

네트워크를 통해 빛의 속도로 상품과 서비스를 사고 파는 광속경제의 시대- 삼성이 앞서 변화하겠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사업, 상품, 서비스, 경영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고객과 기업, 국가가 함께 발전하는 새 천년을 열겠습니다.

Millennium Frontier  
변화의 앞에 선 사람들 - 밀레니엄 프런티어 삼성

